

한국음악교육학회 2026 춘계학술세미나 보고서

2026 Spring Conference Report

김유진*

You Jin Kim

2026년 2월, 한국음악교육학회가 개최한 춘계학술세미나는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교원 양성: 정책, 연구, 현장이 함께 여는 교사교육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 아래,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음악교사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각도로 성찰하고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교원양성의 구조와 교육과정의 정체성, 교사의 전문성, 그리고 교육 현장과의 연계 방식까지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으며, 정책과 연구, 그리고 학교 현장이 서로 연결되는 새로운 교사교육의 지평을 탐색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었다.

김병찬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대전환의 시대’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오늘날 사회 구조의 변화가 교육과 교사교육에 어떠한 과제를 제기하고 있는지를 폭넓게 조망하였다. 그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기후위기,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 그리고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와 같은 거시적 변화들이 교육의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변화가 학교의 기능과 교사의 역할을 다시 정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은 지식 전달 중심 교육의 한계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래의 교사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학습 경험을 설계하고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며 학습 과정을 이끌어 가는 전문적 실천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그는 AI 리터러시와 융합적 사고, 의사소통 능력, 네트워크 형성 역량, 공동체 의식, 감성 역량 등을 미래 교사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으로 제시하며, 교사교육 역시 기존의 관료적 통제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 전문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재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어 김지은 발표자는 인공지능의 발전이 교육의 형태와 목적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교육 체계가 학습자의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충분히 성장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발표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이 암기 중심의 학습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력과 협업 능력,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중심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으며,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감성, 창의성, 소통, 공동체, 자기주도성 역량을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부교수

바탕으로 실제 음악 활동 중심의 경험적 학습이 학생들에게 표현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체적 경험을 형성하는 중요한 교육적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세 번째로, 정성욱 발표자는 기존 합창교육이 지닌 기능 중심적 접근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학습자의 참여와 음악적 이해를 보다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교수 접근을 제안하였다. 그는 현재의 합창 수업이 음정과 리듬의 정확성, 파트 간 균형과 같은 결과 중심의 완성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접근이 학습자의 음악적 사고와 표현의 자율성을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는 음악 요소를 언어적 리듬과 신체 활동과 연결하는 교수 전략인 ‘워드 교수법’을 제시하면서, 가사와 말의 리듬, 발음, 억양과 같은 언어적 요소를 음악 구조와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합창을 단순한 음정 재현의 활동이 아니라 의미를 구성하는 음악적 경험의 과정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마지막 발표자로 참여한 최미설 현장교사는 디지털 전환과 AI 기술 확산 속에서 음악 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을 통찰하며 교원양성 체제의 능동적 변화를 촉구하였다. 최미설 교사는 미래 교사의 전문성이 단순히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능력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교육적 맥락 속에서 의미 있게 통합하고 학습 경험을 설계하는 수업 설계 역량에 달려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어 최교사는 AI 기반 학습 도구의 확산은 수업 준비와 평가, 창작 활동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교사의 전문적 판단과 책임을 더욱 요구하는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미래의 교사는 학습자의 수준과 상황을 고려하여 기술 활용의 적절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음악적 경험의 본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조직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번 2026년 춘계학술세미나는 교원양성의 구조적 개편과 음악교사교육의 비전 재정립, 수업 실재의 혁신, 그리고 AI 시대 교사 전문성의 재정의의 하나의 연속적인 맥락 속에서 함께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리였다. 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흐름이지만, 그 방향과 깊이는 결국 교육 공동체의 성찰과 합의 속에서 형성될 것이다. 기술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며, 교사는 그 수단을 통해 학습자의 삶과 음악적 경험을 연결하는 존재이다. 정책은 현장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하고 연구는 현장의 질문에서 출발해야 하며, 현장은 다시 연구와 정책에 새로운 과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세미나가 보여준 것은 바로 이러한 ‘순환적 연결’의 가능성이었으며, 음악교사교육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 새로운 지평을 스스로 열어갈 수 있는 가능성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2026년 춘계학술세미나의 논의는 일회적 담론에 머무르지 않고 각자의 연구실과 강의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실천되고 확장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음악교육학회가 정책과 연구, 그리고 현장을 잇는 학문적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가며 음악교육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기를 기대한다.